

지혜의 말씀

불기 2563년 4월 / 통권 458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證道歌(증도가)

불 시 표 형 허 사 지
不是標形虛事持라

여 래 보 장 친 종 적
如來寶杖親蹤跡이로다.

모양만을 나타내는 헛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여래의 보배 주장자가 몸소 남긴 종적이다.

불 구 진 부 단 망
不求眞不斷妄이니

요 지 이 법 공 무 상
了知二法空無相이라.

진리도 구하지 아니하고 망상도 끊지 않으니
두 가지 법이 공하여 모습이 형상이 없음을 분명히 안다.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행복한 삶에 이르는 길 / 서경스님

불교상식 · 7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말씀 · 11

알림마당 · 13

대광사 4월의 행사

고맙습니다

대광유치원 4월 행사계획

어린이법회 4월 활동

부처님 오신날 연등접수 안내



표지그림 / 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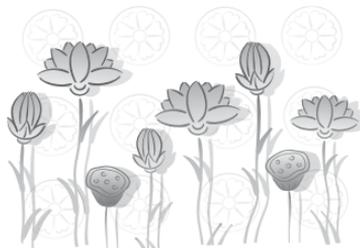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서경스님

● 주 간 / 이숙경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행복한 삶에 이르는 길

서경스님 / 대광사 주지

시간의 흐름이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참으로 속절없이 빠르기 만하다. 나이가 어려서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 어른이 되었음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가속도가 붙어지는 느낌이다. 시간이라는 것은 10년전 이라고 해서 느리게 가고 지금이어서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속도는 일정하다. 그렇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빠르고 느림을 느끼는 것을 불교에서 무상(無常)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연기(緣起)라고 이야기 한다.

새 차를 사서 오래 타다보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끝내는 폐차를 하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은 태어났으면 생로병사(生老病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인간은 태어났으면 세월이 흘러감에 나이가 들고, 병이 찾아오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답답

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각자의 업에 따라 어떤 사람은 늪어짐에, 또 다른 사람은 병에 대하여, 죽음에 관하여 생각하고 느끼는 무게가 다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인 육근(눈·귀·코·혀·피부·생각)의 느낌 또한 그러하다. 어떤 이는 유달리 보는 것에 대하여, 어떤 이는 듣는 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민감하거나 둔하다.

본래는 보이고 들리는 것은 그저 하나의 사건일 뿐인데 말이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것에는 허물이 없다. 이차적으로 보이는 형상에 대하여 분별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다. 구하지 않고 집착하지 아니하면 보이는 것 그대로가 행복한 삶, 즉 깨달음의 삶이다. 보여서 번뇌가 일어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분별하고 구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다. 분별하는 것은 망상이고 집착은 구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되 구하지 않고, 좋다 나쁘다 분별하지 않으면 되는 괴로움이 없는 것이다. 보이는 대상을 내 것으로 만들려 하거나, 버리려 하는 취사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다.

육조스님의 『법보단경』 행유품에 보면 스님이 깨닫게 되신 인연에 대하여 말하는 중 『금강경』의 “응무소주(應無所住) 이생기심(而生其心)”이란 구절을 듣고 깨달음에 이르렀다. 라는 대목이 나온다. 번역을 해본다면 ‘다만 머무는 마음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고 할 수 있다. 설명하자면 마땅히, 당연히 구하거나 기대하는



마음 없이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눈으로 보되 구하거나 집착함이 없이 보면 되고, 귀로 소리는 들되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며,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이 생각이 났든, 분별 시비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과거사 모든 것은 허망하니 따라가지 않으면 그뿐이다. 만약에 과거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온몸이 떨린다.’ 라고 해보자.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생각을 쫓아가기 때문이다. 미래의 일도 마찬가지로이다.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하나? 생각하니 걱정이 되어 잠이 안 온다. 생각이 일어나서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따라가서 걱정에 걱정을 더하니 잠을 못 이루는 것이다. 생각이 분별 집착을 버리면 그만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행복이라는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빨리 다가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디게 도착을 한다.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의 가르치심 한 번에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고, 평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현재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각자 자신의 업에 따라서 빠르고 더딤은 있더라도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일에 대하여 시비 분별 집착을 떠난다면, 행복한 삶을 영위할 것이다.



부처님의 생애

4) 출가와 고행

① 출가의 결심

출가한 사문을 만나고 성으로 돌아온 태자의 소식을 전해들은 췌도다나왕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태자의 출가를 염려한 것이다. 과연 태자는 출가를 허락해 달라고 부왕에게 청했다. 부왕은 완강하게 거절했지만 태자의 출가 결심을 막을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늦은 밤에 홀로 궁전을 거닐던 태자는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라훌라가 태어났구나, 속박을 낳았구나.”

태자의 지위를 버리고 흥분하게 출가하려던 자신에게 자식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결정적으로 출가를 막는 속박이요 방해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들의 출생은 오히려 태자의 출가를 재촉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 큰 애착이 생



겨나기 전에 오래전부터 해온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 먹은 것이다.

출가하기로 결심한 날, 태자는 잠에 빠져 있는 야소다라와 아들을 멀리서 바라본 뒤 시종이자 마부인 찬나(車羅)의 방으로 향하였다.

“일어나라, 찬나야. 깐타까에게 안장을 얹어라. 갈 곳이 있다.”

태자는 성을 넘어갔다. 그리고 찬나를 돌려보낸 뒤, 가지고 있던 칼로 머리와 수염을 자르고 지나가던 사냥꾼과 옷을 바꿔 입었다. 이제는 누가 봐도 완벽한 수행자의 모습이었다. 이와 같은 싯닷타 태자의 출가 이야기는 태자의 출가가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생사의 근본 고뇌와 번민을 해결하기 위한 결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왕위도 버리고 아버지의 간곡한 만류,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 야소다라와 아들 라훌라마저 뒤로 한 채 늙고 죽어가는 고통을 극복하려는 길로 나아간 이 때는, 싯닷타 태자의 29세 되던 해였다.

② 스승을 찾아서

싯닷타 태자 당시 인도의 주류 종교는 바라문교였다. 인도 사회 최상위 계급인 바라문들은 태초에 브라흐만이라는 신이 있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창조해 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브라흐만은 우주를 창조한 인격신이고, 우주의 본질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브라흐만 신을 찬양하는 의식을 집전하고 제사를 올리며 최고의 권력을 부여받는 자격은 바라문 계급에게만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바라문 사상을 부정하며 나타난 혁신적인 종교 수행자들을 ‘부지런히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슈라마나, 즉 사문(沙門)이라고 한다. 그들은 바라문교의 성전인 베다의 권위를 부정하고 집을 떠나서 걸식 생활을 하며 수행하였다.



이들은 다시 새로운 도시 국가들의 왕족, 귀족, 부호의 정치적, 경제적 원조 아래 활동하고 있었다.

수행자가 된 싯닷타는 이러한 사상가들이 대거 몰려 있는 바이샬리로 향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고행주의자였던 박가와를 만났고, 당대의 사상가이자 종교가인 ‘알라라갈라마’와 ‘웃다까 라마뻬다’를 찾아간 그들이 가장 궁극의 경지라고 이야기하는 높은 선정(禪定)의 단계를 체험하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완전한 깨달음의 소식은 얻지 못했다. 선정에 들었을 때는 번민도 괴로움도 사라지지만 선정에서 나오면 여전히 욕심과 어리석음의 존재 그 자체로 돌아갔다. 싯닷타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음을 느끼고 그들을 떠났다.

③ 6년간의 치열한 고행

이제 싯닷타는 당시 많은 수행자들이 걸어갔던 고행(苦行)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가야의 고행림(苦行林)으로 가서 실로 어느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할 정도의 치열한 고행을 했다. 천상(天上)에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궁극적 진리를 얻기 위해 육체를 압박했다.

나는 하루를 대추 한 알로도 보냈으며, 맵쌀 한 알을 먹고도 지냈으며, 하루에 한 끼, 사흘에 한 끼, 이윅고 이레에 한끼를 먹고 보름에 한끼를 먹었다. 그래서 내 몸은 무척 수척해졌다. 내 볼기는 마치 낙타의 발갈았고, 내 갈비뼈는 마치 오래 묵은 집의 무너진 서까래 같았다. 내 뱃가죽은 등뼈에 들러붙었기 때문에 일어서려고 하면 머리를 쳐박고 넘어졌다. 살갗은 오이가 말라비틀어진 것 같고, 손바닥으로 몸을 만지면 몸의 털이 뽑혀 나갔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말했다. “아, 싯닷타는 이미 목숨을 마쳤구나. 이제 곧 죽을 것이다”라고.

『불소행찬(佛所行讚)』



싯달타의 고행은 6년이나 이어졌다. 그의 길고도 혹독한 고행은 그를 죽음 직전의 상태로까지 몰아갔다. 당시 출가 사문이나 종교인들 모두는 고행을 함으로써 욕망을 억제하고 정신세계의 향상을 가져올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고행을 한 사람은 신비하고도 초인간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행자라면 누구나 고행을 했고, 사람들은 치열하게 고행하는 수행자들을 존경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싯달타는 고행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게 된다. 고행은 육체를 극단적으로 확대하기만 할 뿐이었다. 극도로 피폐해진 육체는 정신의 피폐를 가져왔고 그 상태에서 맞게 되는 궁극의 경지는 결코 진실하고 진정한 열반(涅槃)이라고 할수 없었다.

싯달타는 고행을 포기했다. 그것이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의 풍조에서 고행의 포기는 ‘타락한 사문’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중요한 결단이었다.



부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숫타니파타)

제2품 작은 법문의 품

1. 보배의 경

1. [부처님] “여기 모여든 모든 존재들은 지상에 있는 것이건 공중에 있는 것이건, 그 모든 존재들은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2. 모든 존재들은 귀를 기울이십시오. 밤낮으로 재물을 바치는 인간의 자손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방일하지 말고 그들을 수호하십시오.
3. 이 세상과 내세의 그 어떤 재물이라도, 천상의 뛰어난 보배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여래에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깨달은 님 안에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4. 싸끼야 족의 성자가 삼매에 들어 성취한 지멸과 소멸과 불사의 승묘, 이 사실과 견줄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가르침 안 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5. 훌륭한 분이 깨달은 법에서 찬양하는 청정한 삼매는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삼매입니다. 그 삼매와 견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가르침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6. 네 쌍으로 여덟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참사람으로 칭찬받는다. 바른길 가신 님의 제자로서 공양 받을 만하며, 그들에게 보시하면 크나큰 과보를 받습니다. 참모임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7. 확고한 마음으로 감각적 욕망이 없이, 고탓마의 가르침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불사에 뛰어들어 목표를 성취해서 희열을 얻어 적멸을 즐깁니다. 참모임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8. 마치 단단한 기둥이 땅위에 서 있으면 사방에서 부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스런 진리를 분명히 보는 참사람은 이와 같다고 나는 말하니, 참모임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9. 심오한 지혜를 지닌 법에서 잘 설하신,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여덟 번째의 윤회를 받지 않습니다. 참모임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대광사 4월 법회 및 행사

- ◆ 4월 5일 음력 3월 초하루 기도 입재 오전10시 30분 설법전
 - ◆ 4월 7일 초하루기도 회향
 - ◆ 4월 19일 음력 3월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4월 20~21일 울릉도 성지순례
 - ◆ 4월 28일 관음재일 다라니기도 저녁 7시 대웅전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제21회 대광사 청소년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 일시: 5월 25일 세 번째 토요일 오후 7~9시까지
 - 장소: 대광사 작은 뜨락
 - 문의 : 종무소 ☎ 545-9595
- ※ 대광사 산사음악회와 동참하실분은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봄여행 관광주간 만원의 행복

- 기간 : 4월 27일 ~ 5월 8일
- 금액 : 1만원(누구나)
- 신청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 545-9595



고맙습니다

대광 후원회

(2. 19.~3. 19.)

김보배 30,000	우명희 20,000	최진환 10,000	김성욱 30,000
홍승운 20,000	김지현 100,000	허점자 10,000	오미라 30,000
황두관 10,000	이미정 50,000	김병문 30,000	손권자 10,000
(주)카텍 300,000	이상현 20,000	홍예현 60,000	강 란 10,000
진성화 50,000	이현실 30,000	이금재 30,000	후원회 100,000
원광한의원 100,000	금강지 10,000	찬불단 50,000	유미란 50,000
박미애 10,000	이봉숙 10,000	이연숙 100,000	서경스님 100,000
이경화 10,000	유봉약 10,000	정진이 10,000	

◆ 급식소 후원 계좌 :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혜의 말씀(2019년1월~3월)

조순재(청향심) 30,000 김상균 20,000 전진길 20,000 문병학 30,000
이정배 20,000 홍기준 20,000 구명회 1,000,000



4월 대광유치원 행사계획

1. 2019학년도 상반기 학부모 개별교육

- 일시 : 4월 22일 ~ 4월 26일
- 장소 : 각반 교실
- 내용 : 신입원아 학부모 개별상담

4월 어린이법회 활동

1. 어린이법회 안내

- 매월 1, 3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 산행 및 야외법회
- 매월 2, 4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 실내법회
천수경 독경, 체험활동

2. 동련 경남지구 『연꽃문화제』

- 일시 : 2019년 4월 27일(토)
- 장소 : 장유 동립선원
- 대상 : 초등 1~6년



부처님 오신날 연등접수 합니다

- 대웅전 10만원 / 설법전 7만원(가족등입니다)
- 영가등 / 영가(부부는 1영가등으로 합니다) 5만원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 545-9595

대인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